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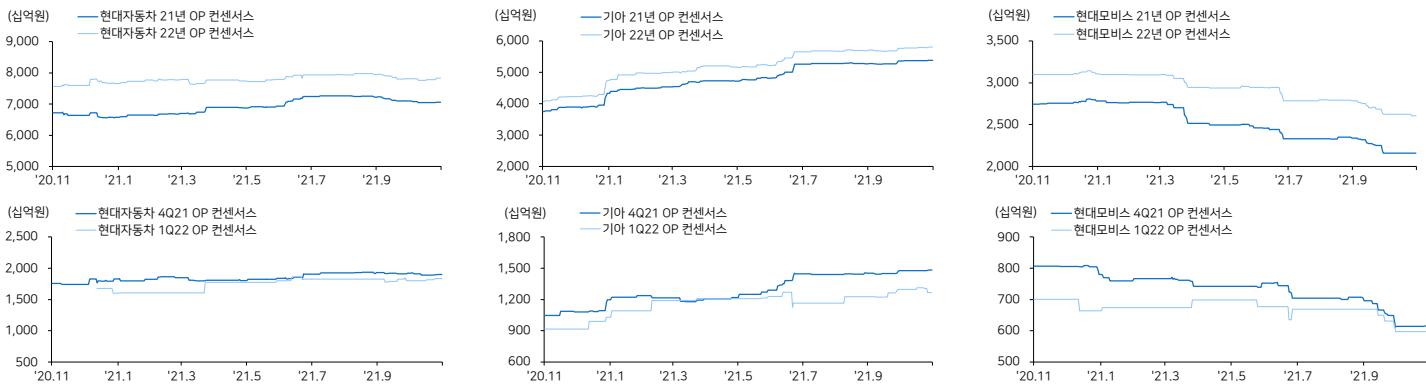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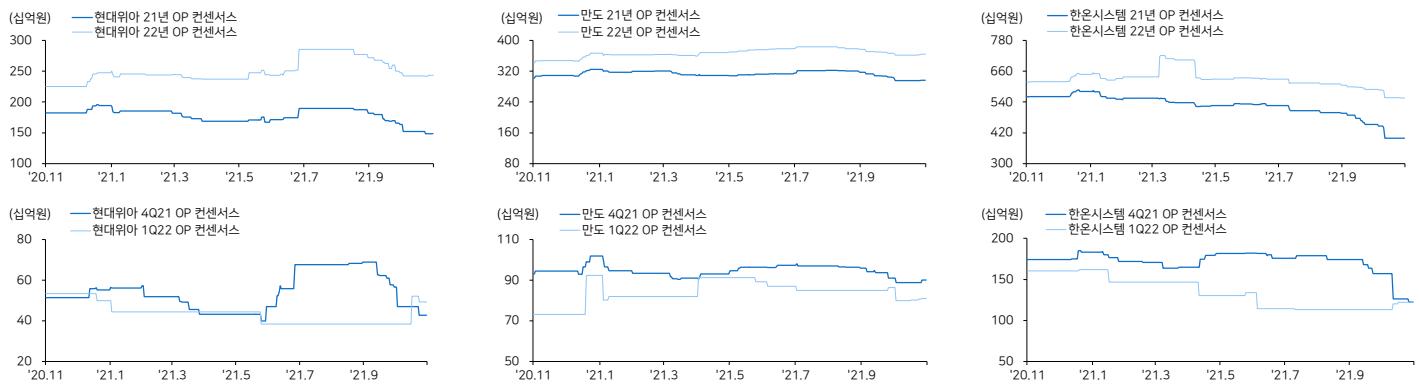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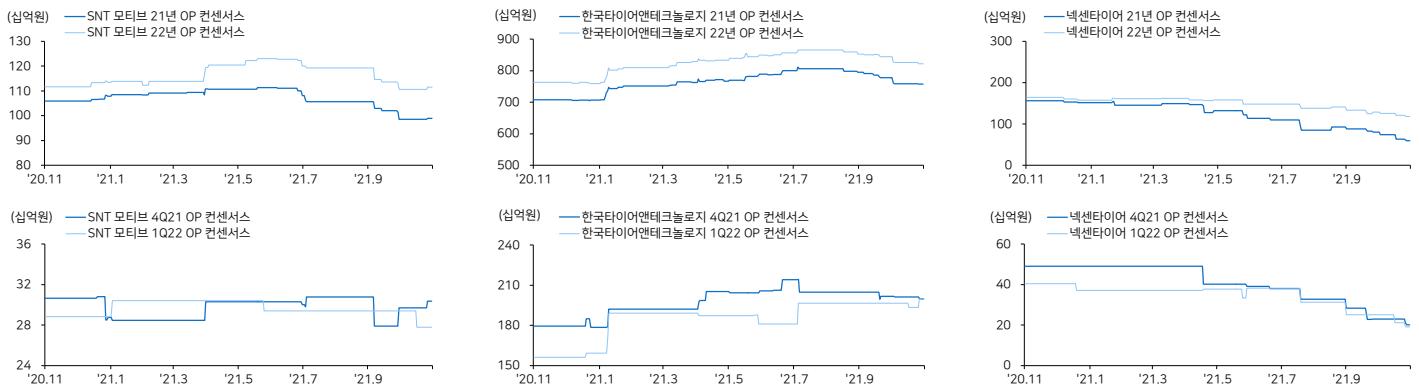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 기아, 유럽 주요서역 대급 점유율... '신기록 행진' (THE GURU)

현대차는 스페인 시장에서 yoy 57% 증가한 5,844대를 판매, 점유율 9.9%를 기록하며 1위에 등극. 독일에서는 10월 8,096대를 판매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 3년 연속 수입브랜드 1위를 차지함. 그 외 유럽 국가에서도 판매 호조세를 이어감.

<https://bit.ly/3xZ4dJl>

印尼 현대차 '크레타' 수출... 新 생산거점 퀸그림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만든 첫 번째 자동차인 '크레타'를 수출함. 현지에서 만든 차량으로 내수뿐 아니라 수출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인도네시아를 아세안의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

<https://bit.ly/31bqjwD>

Nissan unveils \$18 bln electrification push in bid to draw level with rivals (Reuters)

닛산은 '30년 xEV 판매 50% 달성, '30년까지 23개의 전동화 모델 출시, 8년 이내 리튬이온 배터리 비용 65% 감소, '29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도입 등'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을 발표한 월요일 수가는 5.6% 하락함.

<https://reut.rs/3D0C71H>

Tesla Giga Shanghai Is barreling towards an output of over 1M vehicles per year (Teslarati)

최근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CAPA 확장은 위해 12억 원(1.8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이를 통해 연간 생산능력을 100~150만대로 늘릴 계획이며, '22년 4월 확장이 원료될 수 있어 2H22부터 추가 CAPA 생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알려짐.

<https://bit.ly/3o283tE>

현대차, AI 연구 플랫폼 투자... 스타트업 M&A 가속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 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올 3분기 홍콩 마리나 러닝(HKML)에 약 6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됨. HKML 투자를 통해 최근 AI 연구 현황을 살펴 관계인 스타트업 발굴에 나선다는 전략.

<https://bit.ly/3i3RKsW>

일본 전산, '물값 7조' 한온시스템 인수 초읽기 (서울경제)

한온시스템 대주주인 PEF 한인컴퍼니는 일본 전산(니시에)에 한온시스템 매각을 위한 주요 힘으로 마쳤으며 세부 조건 조율 중. 최근 시총은 7조 원 수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6조 원 안팎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2ZA8zdl>

US voters support all-EV sales by '30, but gov. and automakers are way behind (electrek)

미국 유권자의 55%가 '30년 이후 BEV만 판매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반면, 이러한 정책을 추진 중인 주(州)는 아직 없음. 또한 Ford, GM, 크라이슬러 등 OEM은 '30년까지 총 판매의 40~50%만을 EV 판매로 날성할 계획.

<https://bit.ly/3IgYzsr>

U.S. Commerce chief makes pitch for chips funding in Michigan (Reuters)

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은 미시간을 방문하여 미국 반도체 제조 확장을 위해 520억 달러를 승인할 것을 제안함. 미국 반도체 제조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은 현재 상원을 통과하여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음.

<https://reut.rs/3G1Brei>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